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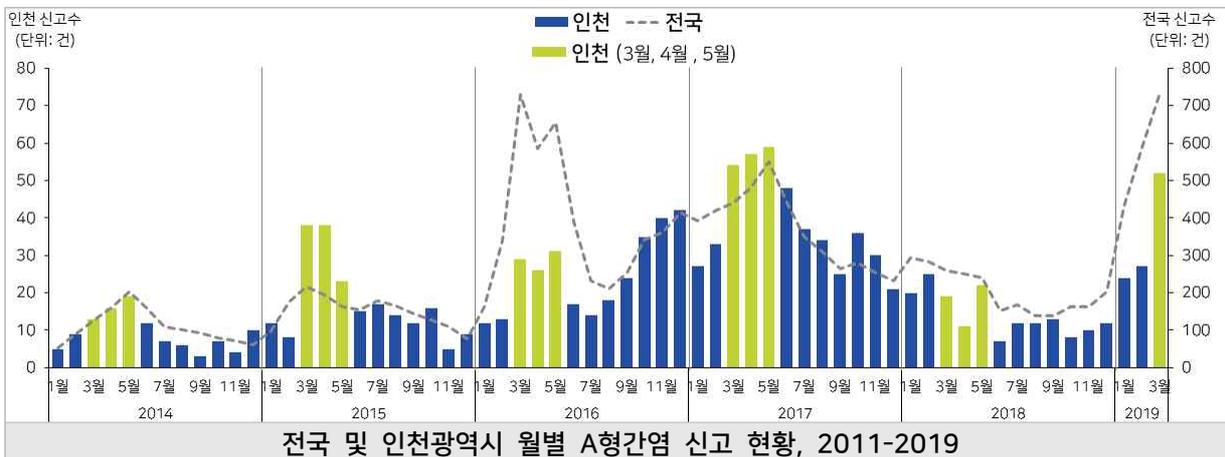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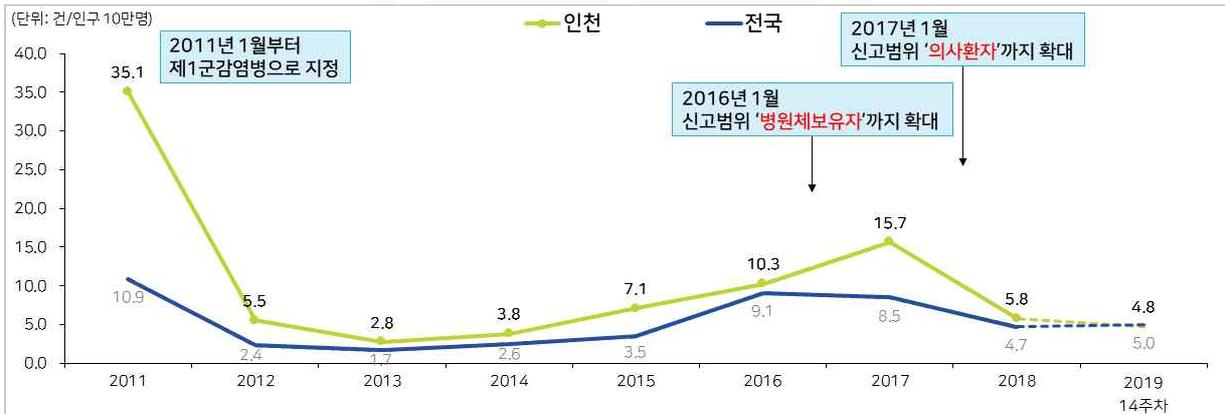
# A형간염

- A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 질환으로 대부분 오염된 식품이나 물에 의해 감염되며 인구밀도가 높은 군인, 보육원 등 시설에서 집단 발생할 수 있음
- 감염 후 15~45일(평균 4주)의 잠복기 후 발열,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상이 심해짐
- 2011년부터 지정감염병에서 제1군감염병으로 변경되었고, 2015년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2012년생 이후 출생아는 무료 접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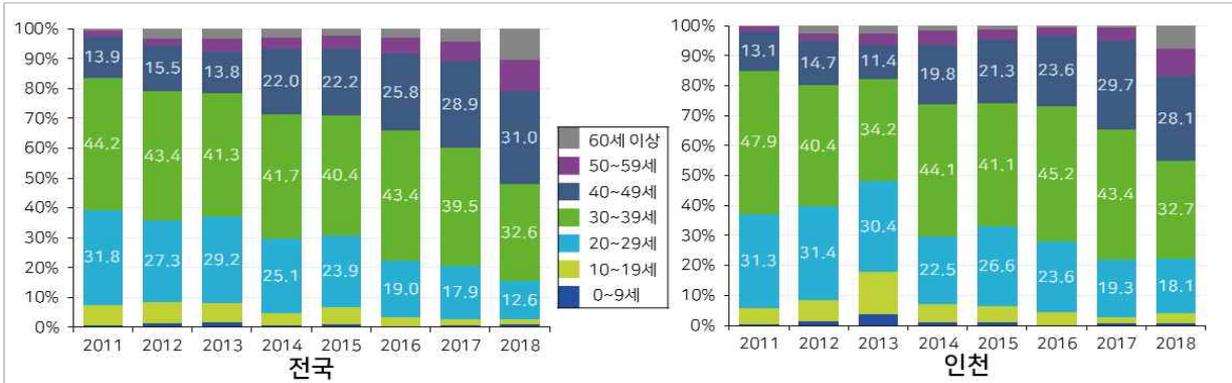
## 발생 현황

※ 자료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2019.4.8. 기준)

- 전국적으로 2014년부터 증가 추세이며 계절성은 없으나 3~5월에 신고수가 증가
  - (전국) 2011년, 2016-2017년은 다른 해 보다 신고가 많았으며, 2018년 인구 10만 명당 4.7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14주차까지 5.0건
  - (인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보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높았으며,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8년 인구 10만 명당 5.8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14주차까지 4.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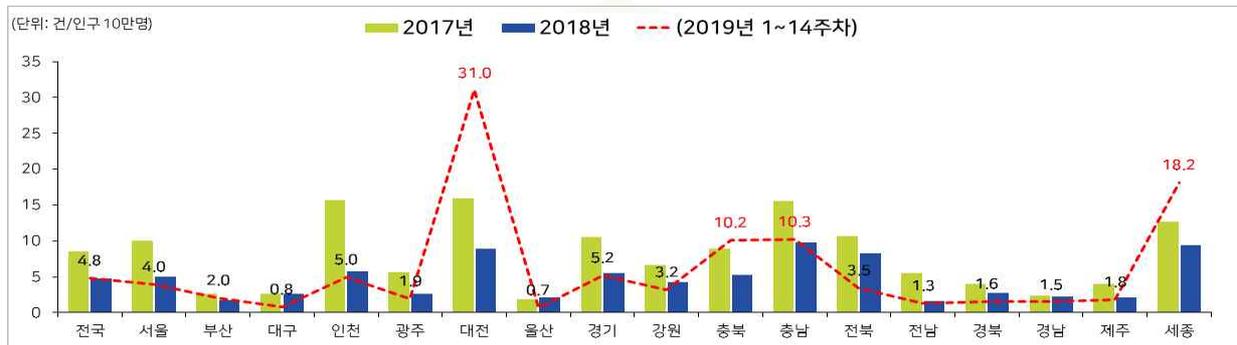


- 연령별로 20~40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2014년부터 20대는 감소, 40대는 증가 양상을 보임
  - (전국) 2011년과 2018년의 연령별 분율을 비교해보면 20대 31.8%→12.6%, 30대 44.2%→32.6%로 감소하였고, 40대 13.9%→31.0%, 50세 이상 2.6%→21.1%로 증가하였음
  - (인천) 2011년과 2018년의 연령별 분율을 비교해보면 20대 31.3%→18.1%, 30대 47.9%→32.7%로 감소하였고, 40대 13.1%→28.1%, 50세 이상 1.9%→17.0%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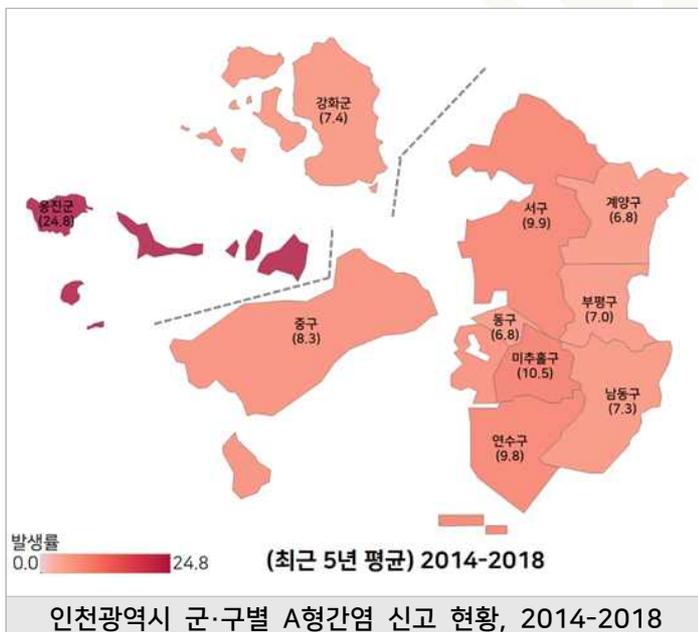
전국 및 인천광역시 연령별 A형간염 신고 현황, 2011-2018

- 2018년 낮은 발생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들어 대전, 충북, 세종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짐
  - ※ 질병관리본부, 주간 감염병 위기분석 및 평가(2019년 10주)



전국 시·도별 A형간염 신고 현황, 2017-2019

- (인천) 최근 5년 인구 10만 명당 평균 발생률은 옹진군(24.8건)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추홀구(10.5건), 서구(9.9건), 연수구(9.8건) 등의 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2.6	3.5	9.1	8.5	4.7
인천	3.8	7.1	10.3	15.7	5.8
중구	2.7	8.0	5.2	18.0	7.5
동구	2.7	2.7	7.0	12.8	8.8
미추홀구	3.7	6.9	14.1	20.8	7.2
연수구	4.9	8.3	12.0	18.7	5.3
남동구	3.1	5.4	7.9	15.4	4.8
부평구	4.0	5.0	8.9	11.8	5.5
계양구	2.6	7.1	7.2	11.6	5.3
서구	5.3	7.8	13.0	17.3	6.1
강화군	4.5	4.5	16.2	5.9	5.8
옹진군	0.0	96.0	4.7	23.3	0.0

■ 발생률 가장 높은 지역  
■ 인천 발생률 대비 높은 지역  
■ 발생률 0